
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 「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」 제7차 회의결과

all ways INCHEON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 인천광역시
(일자리경제과)

「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」 제7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0.1.16.(목) 15:00~17:00 /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
- (참석위원) 위원 14명 중 8명 참석
 - * 배석(2) : 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보, 일자리경제과장
- (주요내용)
 -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보고안전 공유
 - 고용분과위원회 향후 발굴과제 리스트 등 논의

□ 주제별 논의 내용

① 바이오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

- (교육내용)
 -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, 어학수준 등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(경제청 정책특보)
 - 교육 이수한 학생들이 산업현장*에서 직접 체험·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(김○○ 위원) *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과 협업
- (인력수요) 바이오산업의 시장수요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인력양성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음(이○○ 위원)
 - 특정 대기업 중심 인력양성에는 부정적이나, 고졸·이직자 등 다양한 인력 생태계를 지역내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긍정적(홍○○ 위원)
- (산-학 간 교류의 장) 기업-대학 간 소통채널 마련 필요
 - 인하대, 인천대는 연구개발 분야에 취업시키고 싶으나 기업에서는 오퍼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등 눈높이 격차가 있음(이○○ 위원)
 - 기업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초청(김○○ 위원)
 - 채용을 전제로 한 양성교육이 필요, 채용방향 등 청취(홍○○ 위원)
-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'바이오공정전문센터'와 중복되지 않도록 포커스를 맞춰야 함(홍○○ 위원)

② 원부자재 등 국산화

- 바이오기업과 지역기업 간 생생할 수 있는 모델 제시(오○○ 위원장)
 - 삼성바이오, 셀트리온에서 쓰이는 원부자재 중 98%가 수입에 의존하는 등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방안 고민
- 공구 국산화를 위한 여건 마련 필요(오○○ 위원장)
 - 공구상가 대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공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

③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방안

-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, 인천만의 메리트 요인 부재 ➡ 고용의 질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(이○○ 위원)
- 전반적인 인천 산업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필요(이○○ 위원)
 - 울산 등의 산업도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, 인천시는 안전시설 및 관리·감독 부재
- 공단 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필요(오○○ 위원장)
- 30~40대 공단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확한 니즈 파악(이○○ 위원)
-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구인·구직 플랫폼 개발(김○○ 위원)
- 연령대별* 일자리 발굴·매칭하는 사업 개발(이○○ 위원)
 - * 30대 양질의 일자리, 40대 전직훈련, 50~60대 파트타임제 등

④ 기타의견

- 스마트산단의 '근로자 통합복지센터'에 대해 분과위 의견 제시 필요
 - 큰 건물보다는, 규모는 작지만 공장 가까이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절실(경제청 정책특보)